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노동과 존엄, 그리고 기독교신앙”



2021년 11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중계

인터뷰영상 _ 직장갑질119 / 청년유니온 / 영등포산업선교회

발제 1 _ 이상범 교수 (한양대 경영학)

발제 2 _ 구교형 목사 (십자가로교회)

대화 _ 이상민, 김세진, 윤언철 (기윤실 좋은사회위원)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우 상 범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I. 들어가며

○ 고용형태별 노동자 인원 및 월 평균 임금 현황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총 20,559천명으로 나타남. 정규직은 13,078천명(63.6%)이고 비정규직은 7,481천명(36.4%)인 것으로 구성됨
-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180천원이며, 이중 정규직은 3,693천원, 비정규직은 1,620천원으로 나타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율

- 사회보험은 노동자가 질병, 사망, 산업재해, 노령, 실업 등으로 일을 못해 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음. 이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인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함
- 202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율은 92.6%이며 이중 정규직은 97.3%, 비정규직은 74.6%로 나타남.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율은 20-30% 낮음

○ 노동조합 조직률

-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을 설립해 정부와 정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주요한 이해 대변 조직이 필요함. 대표적인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이 노동조합임.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노동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19년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12.5%로 1989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0%지만 비정규직은 3% 미만에 머물고 있음. 비정규직들의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

○ 플랫폼 노동 현황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i) 서비스나 가상재화를 거래하거나, ii) 일감을 구하거나, iii)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거나, iv)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일감이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경우를 말함(일자리위원회, 2020)
- 고용노동부(2021)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는 약 66만 명으로 나타남. 플랫폼 노동자의 80% 이상이 배달, 배송, 운전직으로 일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자들의 월 평균 근무일은 21.9일이고 월 평균 임금은 192.3만 원으로 나타남.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매우 저조함

○ 본 발제문의 목적

- 우리나라 전체 인구(5천만명) 중 월급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2천 만명이 넘으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높음. 또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비해 약자에 속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음.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부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 이해대변 수단 혹은 조직이 필요함
- 따라서 본 발제문의 목적은 첫째 노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을 모색함으로써 노동 및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처우개선을 모색함. 둘째 노동을 저주로 인식하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가 노동을 재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것임

II. 노동, 노동자 그리고 이해대변 조직

1. 노동과 노동자의 의미

○ 초중고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경향신문, 2016.4.29.)

- 초등학교 11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노동’이라는 말을 듣고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 학생은 12명(10.9%)인 반면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 학생은 69명(62.7%)에 달함
- ‘노동’하면 떠오른 단어는 ‘힘듦/힘든 일’로 53명(48.1%), ‘노예/천민’ 7명(6.3%), ‘돈/월급’(11명), ‘공사장’(3명), ‘공장’(2명), ‘하기 싫다’(2명), ‘아프리카’(2명) 등의 응답이 높음
-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업 1위로 아파트 경비원(81명), 2위로 마트 계산원(74명), 3위로 은행 직원(37명)으로 응답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중·고등학생 1,81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중·고교생들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업으로 아파트 경비원(1,279명), 농부(1,251명), 마트 계산원(1,248명), 인터넷 설치기사(1,071명) 순으로 응답함. 또한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1위), 의사(2위), 과학자(3위) 순이며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응답함

○ 일반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 2004년 한국노동교육원의 조사(5점 만점)에 따르면 ‘일하는 것을 고통스런 과정’으로 인식(3.1)하거나 ‘가능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3.1)는 인식이 높음

<표 1> 노동에 대한 견해

구 분	항목별 평균	연령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노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3.11	3.13	3.12	3.1	3.03
가능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3.12	3.3	3.08	3.05	2.82
실업상태라면 3D 업종이라도 종사할 생각이 있다	3.71	3.48	3.83	3.84	3.84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는 사회다	2.92	2.81	2.93	3.01	3.05
평 균	3.22	3.18	3.24	3.25	3.19

자료: 한국노동교육원(2004)

○ 언론들의 노동에 대한 보도

- 2016년 9월 언론사들은 총 60건의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을 보도함. 보도 내용을 보면 시민의 불편을 강조한 보도는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전한 보도가 6건, 경제적 손실을 강조한 보도도 4건, 귀족노조를 비난하는 보도 3건이었음
- 공공부문 노조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인 '성과연봉제'를 다룬 보도는 3건에 불과했고 내용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한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히 언급함
- 이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왜 노조가 마지막 수단인 쟁의행위까지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과 쟁점에 관해 설명한 방송사는 거의 없었음

<표 2> 공공부문 노조 파업 보도형태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소계
'귀족노조' 비난	0	0	0	0	2	1	0	0	0	3
시민 불편 강조	3	2	3	2	7	4	6	6	6	39
성과연봉제 분석	0	0	1	0	0	0	1	1	0	3
정부 대응	1	0	0	0	0	0	0	2	3	6
경제적 손실 우려	1	0	0	0	1	2	0	0	0	4
단순 보도	0	0.5	1	1.5	0	0	0	1	1	5
합계	5	2.5	5	3.5	10	7	7	10	10	60

○ 중고생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노동 및 노동자 모습

-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음. 또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일해야 하는 태도 강조

모든 직업인들은 직무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기가 속한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려는 태도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동화사, p.41)

- 노조는 기업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매우 폭력적이고 시민들을 불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조직으로 묘사
- 또한 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단순히 이익집단으로 설명하고 있음

<사례 1> (중학교 사회3 교과서 p13)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 생활은?

- 정부 :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합니다.
- 경제계 :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법 절차에 따른 **회사측의 정리해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불법 폭력행위를 한 일부 노동계에** 있습니다.
- 경찰관 : **경찰의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중략...)**

<사례 2>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p102~105)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이 지닌 **공동의 목표 또는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노동조합**, 대한노인회, 노래연습장업협회 등이 모두 이익 집단의 예가 될 수 있다.”

○ 노동 및 노동자의 의미

- 근로(부지런할 근(勤), 일할 노(勞)):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함.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수동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 따라서 근로자는 과거 주인-종 의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임, 근로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됨(근로자, 근로소득, 근로시간, 근로조건, 근로장려금 등)
- 노동(일할 노(勞), 움직일 동(動)): 일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함.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임. 또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조함. 즉 노동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목표 지향적이 특성을 가짐. 우리 사회는 제한적으로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함(예, 노동조합, 노동절, 플랫폼 노동 등)

근로	근로	노동
의미	종속적, 수동적, 객체적	독립적, 능동적, 주체적
예	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소득, 근로시간, 근로장학금, 근로복지공단, 근로장려금 등	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부, 노동청, 노동절, 플랫폼 노동 등

	법 조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내용

- 2018년 5월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진일보했고 특히 노동 관련 개헌안은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둘째 국가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명시, 셋째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 정책 시행 의무 신설, 넷째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 다섯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 가능, 마지막으로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이 있음

현행	개헌안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 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 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 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 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되 ,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3조 ① 근로자 는 근로조건의 향상 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 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표적인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달성하려는 조직으로 자주적이고 항구적인 단체임
- 기업에서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해고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부당함이나 불만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 이에 노동자들은 연대를 통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음
- 노동운동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서유럽은 대부분 산업별로 노조를 만들어 노조의 교섭력이 강하며 이를 통해 산업 및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 법은 기업내에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규직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별노조 체계를 가지고 있어 노조의 영향력이 제한적임. 최근에 몇몇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노조를 조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예,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등). 산업별노조가 많을수록 같은 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함. 이 때문에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산업별노조를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임.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 등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노조 형태는 산업별노조임

○ 지역별 이해대변 조직들

-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노조를 설립하기 쉽지 않음
- 지자체들이 센터 등을 설립하여 비정규직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
- 2003년에 울산북구에서 처음 설립된 비정규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서울 및 경기노동권익센터, 최근에 설립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 30개가 넘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에 비정규지원센터 설립을 목표로 세웠음
- 이들 조직들은 노조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고 있음
- 최근에 서울시장이 노동 관련 단체에 대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표 3> 비정규지원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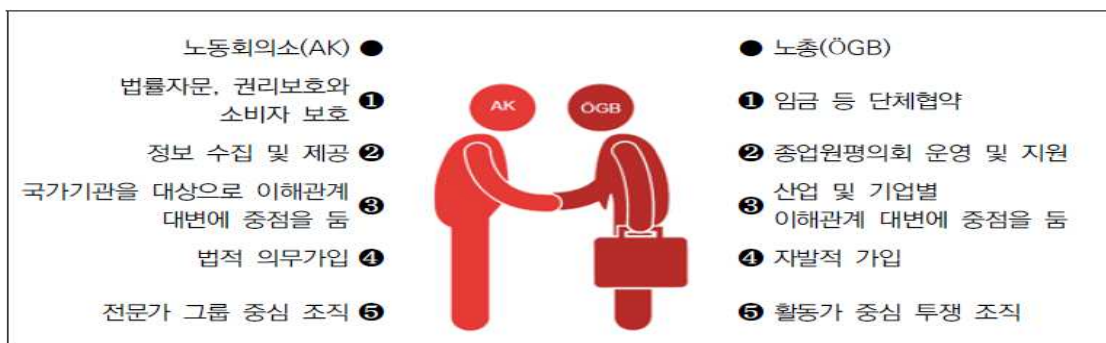
	센터명	설립연도	수탁기관
서울 (13)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2012	민주노총 서울본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2011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2012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2	민주노총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
	관악구노동복지센터	2017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광진구노동복지센터	2017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강서구노동복지센터	2017	강서양천 민중의집
	성북구노동권익센터	2017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19	한국노총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19	한국노총

	센터명	설립연도	수탁기관
서울 (13)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0	한국노총
	서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0	한국노총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0	한국노총
경기 (5)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2013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운영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4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2019	경기도청 직영
충청 (4)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대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5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6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서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7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전라 (4)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3	광주비정규센터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2013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0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5	민주노총 익산시지
경상 (5)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1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0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	동구청 직영
	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4	민주노총 사천시지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7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제주(1)	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7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 노동회의소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약하기도 함
- 노동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특수고용직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하며 이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 사업, 정책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임. 노동회의소는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과 달리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인 법정 민간노동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노동회의소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관련 정보와 자문, 실업 등 사회보험에 대한 자문, 조세법에 대한 자문, 여성 및 가족 정책에 대한 자문, 직업훈련생의 보호 등 다양한 고용노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노동회의소는 노조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노조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¹⁾

<그림 1>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와 노총의 역할 분담과 협력



자료: 이용득 의원의 국감자료(2019)

1) 민주노총은 노조 기능 약화 및 관변단체 전략 우려로 반대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하고 노총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 노동공제회

- 공제회는 자치원리에 입각해서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노동+사회적 경제가 결합한 모델임
- 공제회는 조합원(회원)이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회원들은 주거, 건강(의료), 금융상담, 교육상담, 심리상담, 상조, 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도개선, 연구개발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일부 업종에서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8년 봉제인공제회가 설립되기도 함. 또한 2021년 한국노총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강력한 이해대변 조직

- 노동자들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며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보다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산업별노조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노동회의소를 법정단체로 설립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음

Ⅲ. 교회의 역할

○ 일하는 목사들(2021년 예정합동 및 통합 소속 목회자 총 400명 실태조사)

-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10.4%)보다 '새로운 목회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찬성의견(40.1%)이 4배 높음.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조건부찬성의견(49.4%) 차지
- 이중직 목회자들이 일하는 직종은 단순 노무직, 즉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지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22.3%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15.9%) 택배·물류업(15%) 대리운전·택시(9.1%)이 높은 반면 의사 등 전문직(6.8%), 사무직(8.2%) 종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비정규직(69.5%)인 경우가 정규직(30.5%)보다 배 이상 높으며, 평균 노동시간과 평균 임금은 주 27.1시간과 월 132만원으로 나타남
- '앞으로 이중직 목회자가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데 97.7%가 동의했고, '생계를 위한 이중직이 아닌 전문직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전문직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많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85%가 긍정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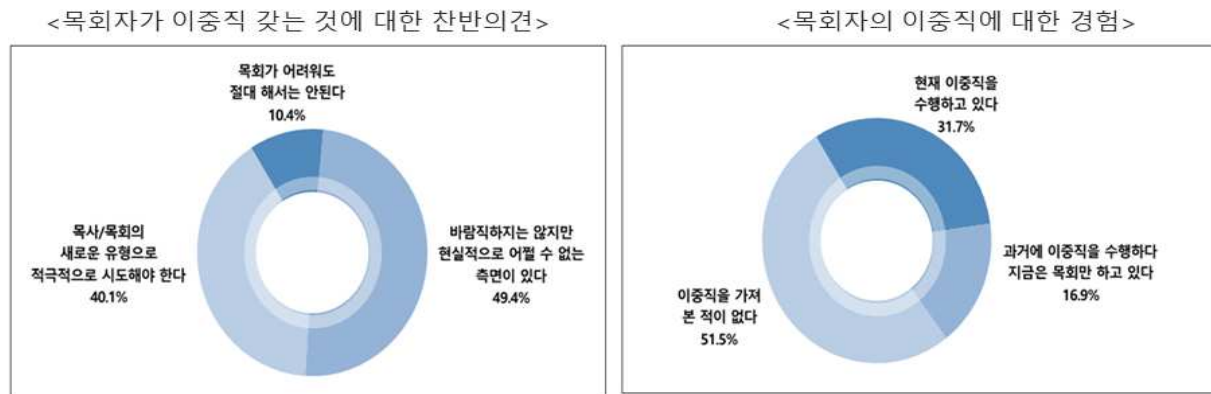
○ 교회의 역할 1: 노동주일

- 예정통합은 1959년 진행된 제44회 총회에서 '노동주일'을 제정하고 지키고 있음. 보통 5월 1일 노동절의 앞 주일인 4월 마지막 주일을 노동주일로 지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은 노동주일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별도의 노동주일을 기념하지 않음
- 영화 '에반 올마יתי'를 보면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나옴(그동안 백인의 잘생긴 모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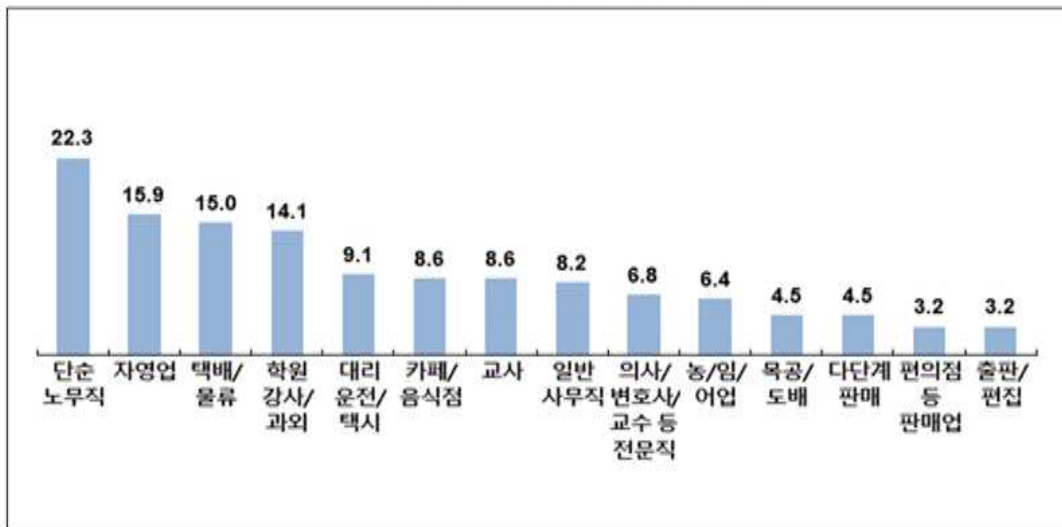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에게 흑인이고 그리 수려하지 못한 외모를 가진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 자체도 충격). 모건 프리먼은 이런 말을 함 ‘용기를 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까?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금방 마음이 뽕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줄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노동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성경적 노동을 발견하는 기회로 노동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교회가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낸다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며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것임
-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노동주일에 노동 관련 설교를 한다면, 혹은 노동주일 설교시간에 진짜 노동자가 강단에 서서 노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노동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림 2>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목회자가 수행하는 이중직의 직종>



2. 교회의 역할 2: 신학에서의 노동인권 커리큘럼 개설

- 모든 학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경과 신학으로부터 시작됨
- 목회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신학의 위대함과 고귀함을 배울 수 있음
- 성도들이 대부분 다양한 직종(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임. 노동을 모르면서 노동자이신 성도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최근에 목회자들이 이종직이 증가하면서 현장 노동을 경험하는 목회자들이 증가 추세임. 그러나 대부분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
- 신학교부터 노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학생 혹은 목회자들이 노동자로서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 이수과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IV. 나가며

○ 우리나라 노동교육의 첫 걸음

-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2020년 12월에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
- 주요 내용은 노동이 뭘까요, 노동 is Good!, Why? 메이데이?, 노동으로 즐기는 노동, 어린이 노동, 노동조합, 함께하면 힘이 돼요 등 모두 12주제로 구성
-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고 과정에 노동과 노동조합 등을 배우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중고등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노사로 구분하여 모의 단체교섭을 실습하기도 함
- 늦은 감이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 선한 창조와 노동

-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묘사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도 일하는 존재일 수 밖에 없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일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담은 자율성, 창의성 등 발휘하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

- 창세기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창세기 2: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또한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임.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는 사람과 노동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경작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노동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다만 그 상황이 변한 것에 불과함

- 창세기 3:17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도로시 세이어즈는 ‘노동(일)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존 스토틀은 ‘노동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강조함
-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임.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강력한 무기임

감을 따면서

김남주

감을 따면서 푸른 하늘에
초가을의 별처럼 노랗게 익은 감을 따면서
두 발의 연장인 사닥다리의 끝에 서서
두 손의 연장인 간짓대의 끝으로 감을 따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뿌리가 있었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과는 구별되는

나는 감 따는 노동을 중지하고
인간의 대지로 내려왔다 직립보행의 동물인 나는
손을 호주머니에 찌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감나무와 감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다 인간을 인간이게 한 것은 노동이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의 노동이었다

숲과 강과 자연과의 싸움에서 노동 속에서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동물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보라 감을 쥐고 있는 이 상처투성이의 손을
손과 발의 연장인 이 간짓대와 사닥다리를
간짓대와 사닥다리를 깎고 잘랐던 저 낫과 톱을
낫을 갈았던 저기 저 슯돌까지를 보라
노동의 손자국이 나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노동의 과실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지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평상을
이 평상 위에 놓은 네 발 달린 밥상과 밥상 위의 밥을
보라 내가 짓고 있는 저 돼지막과
내가 기거하고 있는 저 초가집과

지붕 위에 우뚝 솟은 검은 굴뚝과
굴뚝에서 하얗게 피어올라 하늘 끝으로 사라지는 연기를
보라 장독대를 그 위에 가득 찬 옹기그릇을
옹기에 가득가득 담겨져 진한 냄새를 뿜어내고 있는 간장과 된장을
어느 것 하나 노동의 결실 아닌 것이 있느냐
모두가 모든 것이 노동의 역사 아닌 것이 있느냐

뿐이라 내가 입고 있는 이 내의도
내가 벗어 놓은 저 저고리의 단추도 노동의 과실이자 옷의 역사다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장판지의 굳은살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팔의 뼈도
그리고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피도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의 노동이 창조한 물질이다
노동의 역사이고 인간의 역사다 그리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펜도
펜 끝에서 흐르는 언어의 빛도 종이 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말의 행렬도 하나가
하나같이 노동의 결정이고 인간 역사의 기록이다

이제 확실해졌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한 장본인이었다 짐승과는 다르게
살과 뼈와 피를 빚어낸 마술이었다 기적이었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종착역이다
한마디로 끝내자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다

노동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은 짐승에 가까워진다
이제 분명해졌다 적어도 나에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적은 노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다
아니다 노동에서 이미 떨어져 버린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된장 속의 구더기다 까맣게
감잎을 갹아먹는 불가사의한 벌레다
쌀 속의 좀이고 어둠 속의 쥐며느리이고 축축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서식하는 이고
황소 뒷다리에 붙어 있는 가중스런 진드기이고
회충이고 송충이고 십이지장충이고 기생충이고 흡혈귀다
인간의 동지는 노동 그 자체다.

현장노동의 고된 현실과 이를 통해 배우는 일터신앙

구 교 형
(십자가로교회 목사)

한 달 전쯤 신대원 동기 단독방에 생계현장에서 일하던 어느 목사와 사모가 사고사를 당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동기들은 모두 슬퍼하며 코로나 시대 이후 생존에 내몰린 목회자들의 힘겨운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다. 목회의 자리에서 별안간 노동현장의 심각성을 느끼기 훨씬 이전에도 현장에는 산업재해, 노동재해는 늘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목회를 하던 2015년 7개월 동안 택배기사로 일한 후,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다시 택배기사로 일했고, 지금은 야간 대리운전을 하며 내가 늘 느끼는 바다.

1. 택배기사: 택배만능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과로노동

택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서럽고 힘든 것은 어쩌면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랫말과는 다르게 택배기사보다 물건이 더 소중하다는 취급을 받을 때 몹시 화가 난다. 작년 거의 매일 유난히 억수 같은 장대비가 많이 쏟아져 몸도 가누기 어려웠지만, 몇몇 고객들은 아랑곳없이 예정시간보다 배송이 늦으면 기사도 물벼락 뒤집어 쓴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시간이 늦고 물건이 젖은 것에 화를 낸다. 그럴 때 물건을 던져버리고 싶다.

무엇보다 택배는 각 기사마다 매일매일 평균 200~300개 정도의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날’(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면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다른 기사가 더 힘들어야 하고, 더구나 여러 날 빠지게 되면 민폐가 더욱 심해진다. 얼마 전 과로사를 당한 어느 택배기사 장례식장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택배가 왜 오지 않느냐는 독촉전화를 죽은 아들 대신 받아야 했다. 택배기사에게 저녁 있는 삶, 가족여행, 경조사 등 ‘평범한 일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들려오는 "아프면 쉬세요."라는 공익광고는 정말 사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죽지만 않으면 일해야 한다.

거기에 비해 택배 물품 하나의 배송단가는 700~800원으로 몹시 낮은데, 그마저 회사와 대량 거래계약을 맺은 물품들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수수료가 책정되지만 택배기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정말 가정살림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면 배송을 서둘러 마치고 가게나 기업의

대량물품을 받아오는 집화(集貨)를 또 해야 한다. 아침 6시 50분 물품분류작업으로부터 시작하는 택배기사의 하루는 빠르면 저녁 6시 안팎, 늦으면 밤 10시 전후로 마치는데, 그걸 매주 6일 동안 이어가야하니 늘 피곤에 절어있고, 수면은 항상 부족하다.

택배기사의 한해는 물량이 몰아치는 전쟁의 연속이다. 지금 같은 가을은 곡물과 과일각종에 이어 김장배추와 무까지 농산물로 폭풍이다. 설과 추석의 명절에는 한, 두 주간 전부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명절이 끝난 후에는 연휴를 며칠 ‘쉰 죄’로 여러 날 밀린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여름 내내 택배기사들이 가장 꺼리는 음료종류가 몰아닥친다. 코로나로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데다가 거의 모든 것을 택배로 보내는 택배만능시대가 되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1인가구의 이사집까지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냉동식품인 스티로폼 종류는 철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늘어난다. 다른 물품들은 경우에 따라 하루 정도 늦게 배달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농수산물, 냉동식품류 같은 ‘생물’은 당일배송이 원칙이라 매우 신경이 쓰인다. 그런 생물들을 한꺼번에 싣고 다니다보면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왜 빨리 오지 않느냐’는 독촉에 받으면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왜 택배로 주문하느냐’며 오히려 따지고 싶다. 그런 매일이 계속된다보면, 언제 누가 과로사를 당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택배기사인 우리는 늘 느낀다.

2. 대리운전: 전업을 해도 생활이 거의 어려운 노동

올해 나는 목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6월말로 택배 일을 마치고,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대리운전은 자신이 원할 때 선택하여 일할 수 있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일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택배 기사 일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대리운전은 유료 플랫폼을 이용해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를 대신 몰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다. 대개 직장 일을 마친 고객의 귀가를 돕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리운전을 하는 시간은 빨라도 저녁 6시 반 이후에야 첫 고객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첫 일과를 시작하면 대개 하루 평균 4~5개 정도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나 역시 대중교통이 마감되기 전에 돌아가야 하니 밤 11시면 일을 끝내야한다.

콜을 받아 이용하는 건건마다 플랫폼 프로그램 이용료로 20%가 공제되며, 그렇게 하면 하루 평균 6만 원~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한 달 자동차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목회 등을 겸하기 때문에 주당 4회 정도 밖에 일을 나가지 못한다.

실제 대리운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운전이다. 최근 들어 차종이 다양하고, 차마다 기기의 배치나 기능이 각각이라 탈 때마다 긴장이 된다. 더구나 외제 고급승용차가 늘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가끔 정말 제 멋대로 신경을 돋우는 진상고객도 있지만, 요즘에는 만취고객이 거의 없어 대체로 무난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배달 기사의 경우는 음식이라는 특성상 신속한 배달을 요구하기에 훨씬 서두르고 그에 비해 안전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관계로 그 누구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

3. 고된 현장노동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1)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실 이것은 그저 관리자나 노동자, 또는 고객의 잘못 이전에 우리가 택한 사회체제와 시스템의 문제다.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는 더 많은 이윤과 영리 추구를 최적화하기 위해 발전되었고,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도, 심지어 하나님도 얼마든지 상품이 될 수 있다(출 5:7~9).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겠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에서 우리는 영리 이전에 일자리와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염려하는 은혜의 경영주를 생각할 수 있겠고,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짜 주인과 청지기가 있음을 명심하는 노사관계(엡 6:5~9)도 최대한 기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이며, 또한 고객이며 소비자이다. 물건이 총알같이 빨리 온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니, 가급적 독촉하지 말자. 가능하면 일회용품, 스티로폼을 쓰지 말자. 땀 흘리는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무거운 물건을(더구나 많이) 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가능하면 미리 연락하여 기사와 함께 올려주면 복이 될 것이다. 선한 청지기 마음을 실천하려는 기운실은 이 방면에 더 좋은 지혜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2)일꾼으로서 배우는 것

사실 목사로서 나는 현장 일을 하며 참 많이 느끼고, 배운다. 무엇보다 많이 회개한다. 위에 적었듯이 현장 노동은 여러 모로 함부로 취급받는 때가 많다. 그런데 그동안 그럴듯한 생활교훈을 많이 떠들었던 내가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하는 엉뚱한 자존심을 느끼곤 한다. 익명의 “아저씨”라는 호칭을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싸움은 고객들에게 통명스럽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근 후 어느 고객과 통화하는 내 모습을 본 딸이 한 마디 한다. “아빠는 지금 배달기사야. 인정해! 그리고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데!” 교만한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는데 현장 일은 크게 도움 된다.

무엇보다 더욱 어려워진 목회환경 속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은 성도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과 마음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여러 모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깊어진 한국 현실에서 목사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료와 고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현장노동의 현실이 단순히 힘들다는 문제를 넘어 거기에 있게 하신 그분의 뜻을 스스로도 배우며,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증언자가 되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일터신앙이 될 것이다.